

새로운 시작, 신년호의 이달의 책 후보도서는 기자 추천 중수에서 작년과 차이가 있다. 통상 10권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달의 책' 선정을 진행해온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기자별로 3권씩 추천, 총 12권의 후보도서가 선정위원들에게 전달된다. 2007년 출판저널 1월호부터 3분의 선정위원을 새로이 영입했다. 추천도서 범위가 한 권씩 늘어났지만 기자들의 도서 선정 고민은 줄어들지 않았다. 겨울방학을 겨냥한 다종다양한 도서들이 출간됐고 무엇보다 분야를 넘나드는 책과 외서의 홍수 속에서 토종 도서들을 가려내야 했다. 최종 후보도서 12권 가운데 선정위원 다수의 지지를 받은 책은 문명연구가 정수일 씨의 저작 《실크로드 문명기행》이다. 저자 인터뷰를 통해 책의 중심 내용과 후일담을, 편집자 레터를 통해 출간 의의와 진행과정을 들어봤다.

선정위원 소개(가나다순) - 박스  
 고미숙 : 연구공간 '수유+너머' 연구원, 고전평론가  
 장석주 : 시인, 문학평론가  
 전봉관 : 한국과학기술원 인문학부 교수  
 최재봉 : 한겨레신문 문화부 기자

## 선정위원들의 평가

고미숙

1위 《실크로드 문명기행》

막연한 환상과 익숙한 통념을 깨고 실크로드의 재발견을 통해 문명적 비전을 탐구하는 책. 200여 장의 컬러 화보가 책을 만들기까지의 고투와 열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서울에서 베이징과 서안을 거쳐 둔황과 타슈켄트, 이스탄불에 이르는 광대한 길을 가로지르면서 중국고대와 이슬람 문명, 과거와 현재, 시간과 공간을 교차시킴으로써 독자들을 낯설고 역동적인 사유의 장으로 인도해준다. - 책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신라의 위대한 지성인, 원측과 혜초의 구도적 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큰 즐거움이다.

2위 《길 위의 노래 - 김시습 선집》

김시습만큼 파란만장한 역정을 지낸 이도 드물고, 김시습만큼 사상적 편력이 심했던 지식인도 드물다. 하지만, 그동안은 단지 생육신의 하나로, 《금오신화》의 작가로만 알려져 왔다. 이 선집은 그런 익숙한 틀을 벗어나 김시습의 사상적 스펙트럼을 고루 담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시(詩)와 문(文), 그리고 소설을 두루 포괄했을 뿐 아니라, 거기에 담긴 그의 열정과 울분, 낭만과 비애, 그리고 정치적 통찰력과 탈속적 경지 등을 평이하고도 정교한 현대어로 만날 수 있으니, 독자들에게 실로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3위 《근대를 다시 읽는다 1, 2》

식민지 근대성 연구자들이 대거 동원된 야심찬 기획답게, 천 페이지가 넘는 분량에다 시기나 주제 또한 방대한 영역에 걸쳐 있다.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에 대한 비판을 전면에 내걸고 있는 점도 1990년대 이후 논쟁다운 논쟁이 없었던 학계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으리라 생각된다. 부제에 내걸렸듯이 민족주의와 근대주의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는지는 더 따져볼 일이지만, 생산적 논쟁과 대안을 향한 열정만은 높이 살만하다.

장석주

1위《한홍구의 현대사 다시 읽기》

이 책을 읽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금기와 억압을 내면화하고 있는가를 알고 놀라게 된다. 반공을 국시로 하는 분단국가의 지도자들은 국가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우리를 세뇌시켰다. 그 때문에 우리는 국가가 조장한 폭력에 대해 무감각해져 그것을 방조·방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기에 힘을 보태곤 했다. 파병 국가의 지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숙고는 필연적으로 국가적 폭력을 저의 양심에 비추어 성찰해보아야 한다는 함의를 담는다. 저자는 과거청산, 민간인 학살, 군사주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등의 의제들을 검토하며 그 금기와 억압이 얼마나 몰염치하며 반인권적인가를 명쾌한 논리로 까발린다.

2위《대한민국 욕망의 지도》

욕망은 변화를 이끌고 변화는 다시 욕망의 지형도를 바꾼다. 모든 사회적 현상은 그 밑에서 움직이는 욕망을 외시한 것이다. 사회적 현상 뒤에 숨은 욕망을 읽으면 경제와 트렌드의 흐름도 손에 잡힌다. 먼저 욕망의 지도를 그려보고 그를 통해 도출된 미래분석과 트렌드를 통해 현재와 미래소비자의 니즈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한국인의 내면에 숨은 욕망에서 대한민국 사회와 산업의 지형도를 짚어보는 한국형 트렌드 분석서로서 읽어볼 만한 책이다.

### 3위(근대를 다시 읽는다)

우리는 아직도 근대라는 망령과 싸우고 있다. 우리에게 근대는 달콤한 희망이자 쓰디쓴 고통의 다른 얼굴이다. 기왕에 우리 삶을 억압하고 규정하는 큰 틀인 근대를 주체적으로 읽으려는 시도는 계속 있었다.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나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따위가 대표적인 예다. 이 책은 민족주의나 민주주의라는 진보적 관점과 그 반동으로 나온 냉전적인 진영 논리의 관점 어느 쪽에도 크게 치우치지 않는 중간쯤을 그 좌표로 삼는다. 이 책은 우리가 겪은 압축 근대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된다.

### 전 봉 관

#### 1위(실크로드 문명기행)

정수일 교수가 '한겨레 실크로드 답사단' 일원으로 2005년 7월부터 8월까지 40일간 서울에서 이스탄불로 이어지는 실크로드 3대 간선의 하나인 '오아시스 육로'를 답사하고 쓴 책이다. 실크로드의 역사에 관한 저자의 해박한 지식과 유려한 문장이 200여 장의 아름다운 사진과 함께 실려 있다. 정보가 정확하고 풍부하면 글맛이 없고, 글맛이 풍부하면 정보가 적은 것이 일반적인 인문서인데, 이 책은 정보와 글맛이 어우러진 근래에 보기 드문 인문서이다. 실크로드 역사에 관한 입문서로도, 여행서로도 두루 만족스러운 책이다.

#### 2위(길 위의 노래)

번역은 또 다른 창작이다. 고전은 원문으로 읽어야 제 맛을 느낄 수 있지만, 좋은 번역자를 만나면 짧은 외국어 실력으로 더듬거리면서 읽는 것보다 더 큰 감동을 느낄 수 있다. 매월당 김시습이 남긴 시문·소설 중 대표작을 선별해 번역하고 친절한 해설을 덧붙인 이 책은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때로는 정면으로 맞서고, 때로는 고뇌하는 '인간 김시습'을 이해하는 데 더없이 좋은 입문서이다. 원문의 본 뜻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려 번역한 젊은 학자의 세심한 노력이 돋보이는 책이다.

#### 3위(왜곡된 한국, 외로운 한국)

독문학자인 이지는 교수가 17세기 중엽부터 1910년까지 약 300년 동안 유럽인들이 한국에 관해 쓴 글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한 책이다. 유럽인들이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상상했으며 어떠한 인식틀로 이했는지 오리엔탈리즘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저자가 20여 년 동안 발굴한 1,400여 종의 한국 관련 유럽 자료 중 200여 종을 바탕으로 집필한 책이다. 한국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드러내는 자료를 읽는 것도 재미있고, 그러한 무지와

편견을 불러일으킨 원인에 대한 저자의 분석도 흥미롭다.

### 최 재 봉

#### 1위(실크로드 문명기행)

이슬람 전문가이며 실크로드학의 독보적 권위자인 정수일 선생이 기자들과 함께 실크로드 오아시스로를 답사한 기록. 북경에서 시안을 거쳐 터키 이스탄불까지를 40일에 걸쳐 답사하면서 실크로드의 어제와 오늘을 함께 조감했다. 문명교류사 전공자답게 동과 서의 문명이 교차하며 융합하는 양상을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세밀하면서도 큰 틀에서 파악하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게다가 실크로드를 통한 문명의 교류와 확산을 추적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주체적 관점과 민족적 자긍심을 놓치지 않는 태도야말로 정수일 선생 특유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실크로드 답사 현장에서도 정 선생은 혜초와 고구려 사신, 고선지, 금속활자, 한락연, 고려인 강제이주 등 민족사의 영광과 고난을 놓치지 않고 포착함으로써 실크로드라는 세계 문명사의 현장이 바로 우리 민족의 영역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 2위(근대를 다시 읽는다 1,2)

올 초에 나온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은 보수언론의 집중적인 지원 아래 화제와 논란의 한복판을 차지했다. 1980년대를 풍미했던 《해방전후사의 인식》이 노정하는 역사인식의 편협함을 시정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그 자체 왜곡된 근대화론과 위장된 보수사관으로 술한 문제를 내장한 책이었다. 《근대를 다시 읽는다》는 인문사회과학 각 분야의 소장 학자들이 참여해서 '근대'라는 화두와 대결을 벌인 책이다. 그 과정에서 《해방전후사의 인식》이 지닌 문제점을 넘어서면서 그렇다고 해서 《해방전후사의 재인식》과 같은 '반동'으로 떨어지지 않는 균형감각을 보여준다.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축적된 우리 사회 인문사회과학의 성과들을 분야별로 확인하는 즐거움을 준다.

#### 3위(배추가 돌아왔다)

'배추 방동규'는 '민주 깡패'라는 별명으로도 통하는 인물. 주먹 하나로 세상을 헤쳐 나가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남달라 50년대의 농촌계몽운동에서부터 시작해 70, 80년대의 민주화 투쟁기에는 백기완 씨를 비롯한 재야인사들과도 돈독한 교분을 쌓으며 스스로 간첩 혐의로 고초를 겪기도 한 독특한 인물의 일대기다. 한 시대를 풍미했고 지금도 우리 곁에 있는 실존 인물들과 얽힌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접하는 재미도 있다. **▶▶**

정리 송보경 기자